

## 사하인의 민족정체성과 러시아 민족정책\*

강정원\*\*

### 1. 서론

사하-야쿠트 공화국<sup>1)</sup>은 독자적 헌법<sup>2)</sup>을 가진 러시아연방 내의 공화국이다. 사하공화국은 러시아의 행정구분상 극동지방에 속하며, 면적은 한반도의 15배가 넘는 약 300만 평방킬로미터에 달한다. 사하공화국은 러시아에서 부존자원의 방대함으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이아몬드 외에도 석유,

\* 원고를 꼼꼼히 읽고 논문 수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교수

- 1) 사하는 야쿠트어로 '사람'이라는 원 뜻을 가지는데, 자신들을 집단적으로 칭하는 말이다. 야쿠트는 이웃한 퉁구스인들의 호칭인데, 이를 러시아인들이 받아들이면서 사하인에 대한 호칭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하지만 1990년에 이들이 주권을 주창하고 자신들의 국명을 정할 때, 사하-야쿠트로 하였다. 본고에서는 사하인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야쿠트 공화국이나 야쿠트인이라고 쓰기 보다는 사하공화국, 사하인이라고 쓰고자 한다.
- 2) 러시아연방의 주체 중에서 러시아인과 상이한 민족을 기반으로 성립된 공화국에서는 독자적인 헌법을 가질 수가 있다. 하지만 이 헌법이 각 공화국의 독립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며 연방헌법의 통제하에 놓여 있다.

가스, 석탄 등이 풍부하며, 장차 지하자원이 부족한 한국의 중요한 경제 협력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발달하지 못한 교통체제로 인하여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시아 지역과의 협력이 불충분하나 사하공화국의 수도인 야쿠츠크를 철도로 연결하는 계획이 성사된다면 한국과도 철도를 통해서 연결됨으로써 실제보다 훨씬 멀리 인식되는 공간적 거리가 가깝게 다가올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 드러났던 것보다 심각했던 소련의 민족문제는 뒤이은 러시아에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인권문제를 야기할 정도로 폭력적으로 진압된 체첸인들의 모스크바 인질극과 끊임없이 뒤를 잇고 있는 폭탄테러 사건, 극우나치의 활동 등도 이러한 민족 갈등이 표출된 것이다. 소련의 민족문제가 사회과학계의 많은 주목을 끌어 온 것은 소련 붕괴가 세계에 미친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에 대해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완전히 해결했다고 주장했던 사회주의의 내적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동구와 소련체제 붕괴의 한 원인이 민족문제였고 이후에도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사실은 유럽이나 미국의 진보적 학계에서는 극복해야 할 구시대의 유물로 간주된 민족이라는 개념 혹은 민족주의가 가지는 상대적 보수성 내지는 역사적 지속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소련이 망하고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국가의 근간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공화국이 출발한 현재에도 러시아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민족문제들이 있다. 러시아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연방주체들 사이의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다는 특성을 보여 준다. 형식상으로 연방주체에는 주권국가의 단계에 가 있는 공화국이 있으며, 이보다는 자치성에서 좀더 낮은 자치주와 자치지역 등이 있다. 이는 비러시아인들에게 해당되는 정치 단위이며 러시아인들에게는 주(Oblast)가 연방의 주체에 해당된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의 주는 공화국보다는 자치성에서 낮으며 상징적 의미기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헌법을 가지지 못한다.

이러한 복잡한 연방제도 민족 갈등에 한 원인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 내부의 민족문제 중에서 정치적 독립을 요구조건으로 내건 경우는 체첸과 타타르스탄이며 나머지는 주로 경제적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조정남 1996: 266).

러시아의 민족문제는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국가체제의 형성이 뒤늦은 지역과 일정한 차이를 보여준다. 문화인류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이 지역에서는 종족성(Ethnicity)과 민족문제를 설명하면서 사회 집단의 상호 작용 시에 자신들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종족성에 강하게 부여한다. 즉 종족의 경계를 유지시키는 것은 종족성을 구성한다고 보이는 문화적 특질이 아니라 사회집단이며, 사회집단의 정체성은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의 민족문제는 기본적으로 탈 식민지과정에서 급조된 민족국가가 다양한 종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서 이 과정에서 급격한 정체성의 변화가 관찰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러한 지역의 종족정체성도 짧은 시기에 창조된 것이 아니라 언어적으로나 종교적으로 가깝다고 서로 연대감을 느끼는 사회집단들 사이에서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Peel 1989).

본고에서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에서는 민족과 국가의 관계가 다르며, 그 문제 또한 상이하다. 러시아에서의 국가는 기본적으로 성립역사가 오래되며, 오랜 기간 다민족국가였던 러시아에서의 민족과 종족은 행동반경을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와 달리 한다. 종족성(Ethnicity)에 대해서 근본주의나 도구주의, 구성주의 등이 있는데, 근본주의는 많은 문화인류학자들에게서 비판받는 것으로 보인다. 근본주의가 문제시되는 것은 도구주의나 구성주의에 비해서 종족성이나 민족성을 구성하는 특성들의 지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의 행동을 통해서 열리게 되는 문화적 가능성을 배제할 지도 모른다는 점으로 생각되는데, 근본적인 설명방식도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연결되지 않는 이상 이 지역에서 적용가능하

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민족의 성립연대가 상대적으로 오래 되었으며, 따라서 민족의 경계를 구성하는 여러 요소들도 정치적인 민족주의와는 관계없이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를 인정하는 선에서 현대국가의 기본적인 모습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서방언어로 사하공화국의 민족문제에 한정하여 논의를 진행시킨 논문은 그렇게 많지 않다. 대표적인 논문으로는 Balzer(1996)와 Kempton(1996), Khazanov(1995)를 꼽을 수 있다. Balzer는 미국의 러시아학자로서 오랜 기간 야쿠트에서 현지조사를 한 대표적인 야쿠트전문가로 꼽을 수 있는 학자인데, 이 논문을 통해서 중앙과 주변의 관계로 사하공화국의 민족문제를 살펴보고 있다. 그가 분석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인구구성과 문화정책 및 경제적 관계인데, 정치인들의 행위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Kempton은 사하공화국의 대통령인 Nikolaev와 엘친의 관계를 논의의 중심에 세우면서 중앙과 주변의 틀로 설명한다. Khazanov의 설명은 Balzer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정치적인 움직임과 문화적 요소를 연결시켜서 설명하며, 이 과정에서 문화적 요소가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특히 야쿠트 사마니즘이 이러한 면을 잘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위에서 Balzer와 Khazanov의 논문은 문화적 요소를 사회관계에 종속시키는 순수한 구성주의적 입장(Eriksen 1993: 92)을 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야쿠트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나 종교가 러시아인들이 이 지역을 지배한 지 400년이 다 된 현재에도 지속되어 온 과정을 러시아인들의 민족정책과 야쿠트인들의 민족정체성과 연관시켜서 이해해보고자 한다. 이는 민족의 경계가 유지되는 과정과 민족성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동시에 답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Eriksen 1993: 57). 즉 야쿠트 민족성의 객관적인 내용의 형성과정 및 그 작동과정을 역사적인 여러 사건과 정책을 통해서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민족의 형성이 정치적인 동인을 통해서 형성되어 왔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종족이나 민

족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한편으로 강조하고자 한다(Smith 2000). 어떤 사건이나 과정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적인 의미만을 강조하다가 보면 문화적 요인이 가지는 힘을 간과하기가 쉽다. 한 개인이나 집단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듯한 행동에도 사회구조나 문화의 역사적 힘 등이 작용함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종족이나 민족의 형성도 이와 유사하다고 생각된다.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전제된 근대적 민족의 탄생에는 정치적인 선택이 중요하지만, 선택을 강조하는 설명은 민족의 본질을 설명하지 못한다. 근대적 민족 이전에도 민족이나 종족은 존재했으며 이를 근대 민족은 기반으로 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랜 세월에 걸쳐서 형성된 상징물이 하나의 종족이나 민족에 중요하다는 스미스의 주장에 공감하면서 이 상징으로 야쿠트인들의 종교와 언어, 생활방식 등을 보고자 한다. 종교나 언어, 생활방식은 오랜 역사를 통해서 기본 이상형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외부의 여러 간섭에도 불구하고 잘 변화하지 않는다. 오랜 기간 동안 러시아의 지배에도 불구하고 사하 문화의 기본형과 감정적 귀속감을 기반으로 하는 종족/민족 정체성은 유지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여러 외부 요인에도 불구하고 문화 요소들이 유지되는 과정을 본고에서는 살펴보고자 한다. 사하인들은 러시아라는 국가의 국민이라는 정체성과 동시에 사하인이라는 민족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국민정체성과 민족정체성의 갈등관계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오히려 현재의 정체성과 사하 문화가 오랜 역사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에 관심을 둔다. 이러한 관심은 세계화론이 주도를 하면서 문화적 다원주의가 대세라고 주장하는 담론이 한편으로는 문화제국주의의 다른 모습일 수 있으며, 또한 민족국가 수립을 원하는 민족이 있다면 형식적인 문화적 다원주의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국가를 형성하고 균질적인 문화를 확보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주장과 연결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사하인들이 적어도 자치공화국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라고 보며 따라서 이들의 정체성도 종족정체성이 아닌 민족정체성이라고 명명하였다. 본고는 1998년 5월과 6월, 1999년 2월, 2000년 7월, 2001년 7월에 행한 현지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와 문헌자료에 근거하고 있음을 밝혀 둔다.

## 2. 역사와 인구구성

사하(야쿠트) 사람들은 튀르크어계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체질인류학적으로 몽골인종에 속하며 인구는 약 40만 정도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레나 강과 그 지류인 빌류이, 암가, 알단 강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가장 큰 도시는 야쿠츠크이다. 이들이 이 지역에 거주하기 시작한 것이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으며 대체로 이들의 이주가 12세기에서 15세기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주 이전에 이들은 바이칼호 주변에서 살았는데, 부랴트인들의 이동을 계기로 레나강을 따라 북방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동 후에 이들은 하나로 통일된 정치체를 형성하지 못하였고, 작은 부족과 씨족의 형태로 서로 경쟁하였다. 17세기 초반에 러시아가 빌류이강과 레나강을 통해서 사하에 진출하면서 사하인들은 새로운 정치체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사하인들은 러시아라는 세력하에 들어가게 되면서 정치적, 경제적 자유를 박탈당하고 식민지적 피지배관계에 놓이게 되었다(Forsyth 1992).

식민지적 위치가 적어도 외견상 극복된 것은 1922년에 야쿠트 자치공화국이 소련 내의 러시아 공화국에 성립되면서이다. 하지만 평등해 보이는 외견과는 달리 사하인들이 누릴 수 있는 자유는 제한된 것이었다. 이러한 종속성은 1992년까지 약간의 기복은 있었지만 지속되었다고 생각된다. 현재의 사하공화국은 야쿠트 자치공화국의 후신으로서 1990

년에 그 주권을 선포하고 1992년에 헌법을 제정하였다. 1993년에 러시아 연방정부와 연방조약을 체결하고 1994년에 자체 의회인 일 투멘을 개최하게 되었다. 사하공화국이 주권공화국으로서 스스로 연방에서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였지만, 이것이 1993년의 러시아 연방헌법에서 부정됨으로써 주권공화국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명목상의 권리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Kempton 1996: 588; 조정남 1996: 231).

사하공화국의 전체인구는 약 100만이 조금 넘지만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준다. 사하공화국에서 인구비중이 가장 큰 민족은 러시아인들로서 이들은 약 50%를 점한다. 1990년대 이후에 이들의 비중이 조금씩 주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1989년에 전체 인구의 50.3%에서 1996년에는 약 47%를 점하고 있다. 야쿠트인들은 1989년에 33.4%를 차지하다가 1996년에는 약 40%를 차지하고 있다(Latvinova 1997: 102). 이처럼 사하인들은 러시아 내의 많은 소수민족들처럼 자신들의 공화국에서도 소수민족의 위치에 처해 있다(Narody rossii 1994). 하지만 가족과 친족 등 기존의 사하사회에서 인구증가를 지탱하였던 제도가 사회주의 근대화를 통하여 붕괴, 변화됨으로써 인구증가에 제동이 걸린 상태이다.

### 3. 러시아의 민족정책

러시아는 15세기 말까지 스스로 몽골-타타르 인들의 제후국으로서 타민족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아 왔다. 16세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는 몽골-타타르인들의 지배에서 벗어나 이미 여러 소수민족을 거느리게 된다. 17세기가 되면 러시아의 영토는 이미 태평양에 이르게 되었고, 18세기에는 북미대륙의 일부까지 지배하게 되었다. 이 때가 되면 러시아는 여러 민족을 거느리는 제국이 되었으며, 제국주의와 식민주의가 국가의 중요한 이데올로기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당시에 러시아 짜르 정부는

소수민족들을 러시아인들과 대등하게 대하지 않았으며, 본고에서 관심을 가지는 시베리아의 소수민족들은 야삭(공물)을 바치는 2등 신민에 불과하였다. 아울러 소수민족으로서 정치적인 자치를 누릴 권리도 당연히 박탈되었다. 모스크바의 짜르는 일반적으로 군대라는 폭력수단을 통하여 여러 민족을 지배하였다. 사하인들의 저항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야쿠츠크라는 군사요새를 설치하였으며 군대를 주둔시켰다. 18세기 후반이 되면서 종교라는 좀더 부드러운 수단을 부가시켰다. 러시아 정교는 러시아인이 되는 상징적 기준으로 여겼기 때문에 식민지배 초기에는 소수민족들이 러시아 정교회 신자가 되는 것을 억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한명의 정교회 신자가 증가하는 것은 곧 야삭으로 제출되는 모피 양의 감소를 의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의 정세상 제국으로서의 품모가 중시되던 18, 19세기에 들어서면서 러시아 정부는 정교회 신자가 되는 것과 야삭의 면제를 연계시키는 제도를 폐기하면서 소수민족들을 러시아 정교회의 신자로 만들고자 하였다. 개종을 시키는 과정에서는 야삭의 한시적 면제라는 제도를 동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하인들은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정교회의 신자가 되었으며, 그 결과 전통적으로 내려 온 종교체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야기되었다.

러시아 짜르정부는 소수민족들이 공물만 제대로 바치고 반항을 하지 않는다면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들의 생활 방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의료/교육체계의 개선은 관심 바깥에 있었다. 아울러 언어 사용에 있어서도 러시아어를 강요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사하인들에게 신학적 지식을 전하기 위한 노력이 정교회 신부들 사이에서 나타나서 성경이 야쿠트어로 번역되거나 사전이 편찬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야쿠트어가 문어화되면서 민족성의 중요한 수단으로 등장하는 데에 기여하였다고 생각된다. 19세기에 야쿠치아에서는 러시아어보다 야쿠트어가 좀더 중요한 상업적 수단으로 각광받았을 정도였다(Kang 1998).



20세기가 되어 러시아에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면서 러시아의 민족 정책은 큰 변화를 불러 온 것처럼 보였다. 러시아 제국을 사회주의 체제의 소련으로 전환시킨 레닌은 처음에는 많은 마르크스주의 정치가들처럼 소수민족 문제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사회주의 혁명에 러시아 제국 내의 소수민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계급해방과 함께 민족해방도 중요한 정치적 목표의 하나로 간주하였다. 즉 레닌은 유토피아적으로 민족문제를 생각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정치적인 자결권을 부여하고자 하였다(고재남 1996: 173-174). 레닌은 사회주의 혁명이 점차 완성되어 갈수록 민족의 독립요구는 감소될 것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래서 혁명 초기에 적극적으로 여러 민족의 자결권을 주창하였다.

하지만 혁명 이후에는 좀더 구체적인 문제에 봉착을 하였는데, 민족의 자결권을 유지하면서도 러시아 제국의 원래 국경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치적인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다. 레닌과 스탈린은 이에 모든 민족이 하나의 정치체를 구성하여 연방을 구성하는 안에 동의를 하였다. 이 연방제의 특성 중의 하나는 모든 민족과 영토를 일치시키는 점인데, 당시 러시아에 존재한 민족들은 자신들이 살던 지역을 자치영토로 많은 경우에 인정받았다. 이 행정단위가 연방제의 주체가 된 것이다(고재남 1996: 175-182). 결과적으로 여러 소수민족들은 연방제에도 불구하고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제도 때문에 정치적인 자결권에는 제약을 받았지만, 영토는 인정받게 되었다. 이렇게 민족 별로 영토를 인정한 것은 민족국가로의 출발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후에 민족문제의 씨앗을 제공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전체 소수민족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는 약 50여 개의 민족이 자신들의 영토를 인정받았으며, 자치공화국이나 자치주, 자치지역을 얻었다.

아울러 레닌의 민족정책에 따라 소수민족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공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자신의 문자를 가지게 되었으며, 자신의 언어로 근대적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엔더슨이 지적한 “민족활

자어”를 가지고 교육하게 됨을 의미하며(앤더슨 2002: 75), 민족적 공동체가 형성되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언어를 좀더 중요한 상상의 민족공동체의 구성요소로 간주할 수 있는 기반을 레닌의 민족정책이 제공한 것이다. 혁명 초기부터 광범위하게 도입된 기초교육은 소수민족들에게도 해당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근대교육을 받게 되었다(Simon 1986: 17). 종교 문제에 있어서 레닌은 전통 종교를 믿을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았다(방일권 1996: 69-71). 시베리아 소수민족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샤머니즘은 192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극심한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Forsyth 1992: 287-290; Balzer 1993: 235). 여러 종교 중에서 특히 샤머니즘은 많은 탄압을 받았는데, 1940년대에 들어서서 공산당이 필요에 의해서 러시아 정교회와 맺은 화해의 손길을 샤머니즘에 내민 적은 없었다.

1920년대에 민족문제에 우호적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레닌이 사망하고 스탈린이 들어서면서 민족정책에도 변화가 생기게 된다. 스탈린은 레닌의 이상적 사회주의를 현실적인 일국 사회주의로 바꾸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집단농장화와 정치적인 면에서는 대규모 숙청, 문화면에서는 언어/문자 정책을 들 수가 있다. 특히 스탈린은 민족문제를 고려하면서 소련의 여러 민족 중에서 러시아인을 중심에 두는 경우가 많았다. 1920년대 민족 정책의 초기에는 소수민족의 문자를 끼릴문자가 아닌 라틴문자에 기반하여 고안하였다. 장차 사회주의가 진전된다면 라틴문자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끼릴문자도 라틴문자로 대체된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스탈린은 1938년에 라틴문자를 다시 끼릴문자로 대체시켰다(Simon 1986: 178; 고재남 1996: 186). 즉 각 소수민족 별로 실시된 권리 보호 정책이 대러시아주의에 입각한 정책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형식적으로는 특정 종족이나 민족을 기반으로 하는 민족국가의 모습을 소련이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내용적으로 대러시아인을 중심으로 하는 민족국가를 지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지식인이나 당관료 등이 1930년대에 대규모로 숙청을 당했지만, 소수민족이 지역관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도 특기할 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코레니자치야”로 불린 이 정책이 토착관료들의 민족의식을 고양시키고 소수민족 사회의 지리적 분리를 심화시켜서 효율적인 러시아화 정책의 수행을 어렵게 하였기 때문이다. 1970년대의 브르즈네프나 안드로포프 시절에 각 공화국에서 토착 관료가 차지하는 높은 관직 점유율을 감소시키려는 중앙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소수민족들의 민족의식과 그에 기반한 정치적 민족주의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왔다(고재남 1996: 187).

1900년대 후반의 민족문제는 경제적인 면도 있었지만 언어정책에 기반하는 바도 컸다. 모든 소수민족에게 러시아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사용하게 하는 정책이 소수민족의 많은 반발을 불러 일으켰기 때문이다. 특히 공적 영역에서 러시아어 사용이 강화된 측면도 소수민족들의 불만을 가져온 것 중의 하나이다. 스탈린 사후에 실시된 정책들은 강제적인 방법보다는 “소비에트화”라는 새로운 개념에 기반하여 상대적으로 유화적으로 실시되었다. 브레즈네프는 ‘소련 국민’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소련의 여러 민족이 이제는 소련국민으로 단합되었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소련국민이라는 개념이 레닌이 목표로 내걸었던 민족간의 융합보다는 민족 간의 화합에 기반하였으며 역설적으로 스탈린의 대러시아주의를 토대로 하였다. 이는 브레즈네프가 실시한 러시아어 교육 및 사용을 확대정책에서 잘 드러난다(고재남 1996: 191). 1980년대에 고르바초프 정권이 등장하면서 실시한 일련의 자유화 정책 속에서 여러 정책을 통해서 내재화된 민족 갈등이 드러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새로운 민족주의는 소련이라는 국제주의를 표방한 국가가 붕괴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지만 소련의 붕괴에는 각 소수민족들의 민족주의와 함께 소련의 만행 노릇을 해 온 러시아인들의 민족주의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조정남 1996: 217-218).

## 4. 사하 민족정체성과 문화

### 1) 사회주의 이전

러시아인들이 오기 이전에 사하인들은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하고 씨족 단위 별로 흩어져서 살고 있었으며, 씨족들 사이에 전쟁도 벌어졌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에게 하나의 단일한 정체감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통의 신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언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Kang 1998). 러시아인들이나 이웃한 에벤인, 에벤킨인, 부랴트인 등과 좀더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고 러시아 식민 정책에 따라 사하의 씨족이나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사라지게 된 점 등이 사하인들의 단일한 귀속감을 좀더 강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사하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의식하고 있었던 것은 러시아의 식민정책에 대한 반응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러시아의 식민정책에 대하여 사하인들은 18세기에 이미 자신들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관리를 파견해 줄 것을 모스크바에 건의하였던 것이다. 러시아인들의 종교를 받아들이기는 하였지만, 전적으로 자신들의 종교를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흑백 샤머니즘 중에서 백샤머니즘이 러시아 정교에 의하여 사라지게 되었고 흑샤머니즘은 사회주의 정권의 탄압이 있기까지 러시아 정교회 신부와 러시아 경찰의 지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존재하였다.

언어 영역에 있어서 사하인들은 특별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인들이 레나강변에 건설한 야쿠치아의 수도 야쿠츠크는 시베리아 무역로의 중심 중의 하나였으며, 러시아인들의 식민지배 이후에 유목에만 종사하던 사하 사회의 지배층들은 무역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사하 상인들은 19세기에 이 지역의 유대인으로 불렸으며 사하어는 무역교통어로 기능하였다. 심지어 이 지역에 파견된 러시아

관리들도 사하어를 배우고자 했다고 한다. 물론 사하의 지배층 자체들도 이르쿠츠크나 노보시비르스크 등지의 도시에서 새로운 문물을 배웠으며 이들<sup>3)</sup> 중에서 19세기 후반부터 형성된 근대적 사하 민족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하는 이들이 배출된다.

19세기에 사하인들의 민족정체성은 여러 영역을 통해서 점차 더 강화하였으며, 사하어나 샤마니즘이라는 문화적 요소를 사하 민족성 내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이는 1900년대 사하 지식인들의 샤마니즘에 대한 민속학적 관심으로 표출이 되기도 한 점 등에서 잘 보여진다. 이들은 샤마니즘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하여 자료집을 펴내었으며, 직접 조사를 하기도 하였다.

사하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목민이었으나 러시아 정부의 강요로 모피를 생산하기 위한 사냥을 강요받음으로써 생업에 많은 지장을 받고 있었으며, 도로건설 등의 부역에도 많은 고통을 받았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 이외에 정치적으로도 러시아인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즉 의무는 충실히 수행해야 했지만 권리는 누리지 못했던 식민지 백성의 신분을 사하야쿠트인들은 벗어 던질 수가 없었다. 러시아인들과의 다방면에서의 지속적인 접촉은 사하인들의 민족 경계를 분명히 하였으며, 민족성의 문화적 요소도 더 뚜렷하게 만들었다. 이는 또한 사하인들이 이 지역에서 누렸던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하어나 샤마니즘은 사하인들의 사회주의의 여러 변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내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사하인들의 민족정체성이 러시아 제국 시절에 유지되고 강화된 것은 야삭징수나 민족주의적 움직임에는 강압적이면서도 일상 생활에는 방임적인 러시아 정부의 식민정책에도 원인이 있었다고 보인다. 식민지배하에서 사하인들의 민족 경계가 약화되어야 할 근거를 식민정책은 크게 제공하지 않았던 것이다.

3) 대표적인 이들이 뒤에 소개될 콜라코프스키, 크세노폰토프, 소프로노프, 오윤스키 등이다.

## 2) 사회주의 이후

현재 사하공화국은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다민족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인과 사하인들이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하공화국의 민족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민족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러시아인과 사하인들이 일상적인 공간을 통하여 부딪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러시아인들과 사하인들의 거주공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인데, 농촌 인구의 약 70%를 사하인들이 형성하며, 러시아인들은 많은 수가 광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도시를 형성하여 거주한다(Khazanov 1995: 179). 이러한 상황에서 사하공화국의 중심인 야쿠츠크를 제외하면 러시아인과 사하인들의 거주지가 섞이는 경우는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야쿠츠크시 등을 비롯한 도시에서만 러시아인과 사하인들의 혼재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야쿠츠크시에서 민족별로 거주지가 철저히 구분되는 것은 관찰할 수 없으나 직업별로 주택건설을 하는 사회주의의 특성상 일정시기에 지어진 주택가에 러시아인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현재 사하공화국에서 체첸처럼 전쟁 등의 폭력적 수단을 동원해야 하는 민족 간의 갈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민족 사이에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화국 내의 민족문제와 공화국 밖의 러시아 연방 차원의 민족문제를 구분해야 하는데, 중앙-지방간의 갈등에 따라 사하공화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러시아 본토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의 이해관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하공화국의 러시아인들은 현재의 공화국 정부에 지지를 보낸다. 이들은 중앙이 다이아몬드나 석탄, 천연가스를 비롯한 지하자원의 채굴에서 나오는 이익의 배분에 있어서 좀더 많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하공화국에 양보를 하기를 바라는데, 이러한 역할을 현 정부가 잘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러한 차원에서는 민족간의 이익충돌보다는 중앙

과 지방간의 갈등이 더 주요하다고 볼 수 있다(Kempton 1996). 하지만 모든 갈등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대립으로 설명될 수는 없다. 특히 사하인들의 주권선언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인과 사하인의 갈등이 주요한 것으로 등장한다. 만약에 사하공화국이 많은 젊은 사하인들의 소망처럼 독립한다면 그것은 사하공화국에 사는 러시아인들로서는 달갑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 사하인들에게는 공통의 언어와 기원신화 및 단일한 종교 등이 있었으며, 사하라는 이름으로 자신들을 지칭하였다. 이들이 자신들의 소속을 약하게 해야 할 이유는 최근에 들어서 소비에트 정권의 소비에트 시민론이 등장할 때까지 상대적으로 작았다. 19세기 초의 강요에 따른 사하인들의 집단 개종도 사하인들을 러시아인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았다. 이러한 강한 소속감에는 문화적, 지정학적, 경제적 요인과 함께 외부적 규정, 즉 러시아인들의 제국주의적이고 식민주의적인 정책도 크게 작용하는 데, 러시아의 강한 차별과 규정은 사하인들의 탈사하화를 어렵게 만들었다. 이러한 민족성은 소비에트정권이 등장한 초기에도 큰 변화를 겪지 않았다.

초기 소련정권은 객관적으로 민족을 규정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민족을 일정한 영토와 결부된 채 경제적이고 심리적, 역사적, 문화적으로 형성된 인간집단으로 규정하였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레닌은 정치적인 자결권까지 민족/종족 집단에 부여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화적인 자결권을 부여하는 정도에 그치게 되었다(Istoriya III: 75-77). 대러시아주의를 신봉하는 스탈린은 효율성과 일국사회주의를 이유로 학교나 군대 등 공적 기관에서의 러시아어 교육을 강화시켰다. 코레니자치야 정책을 통해 형성된 많은 관료와 체계적으로 도입된 근대교육을 통해 형성된 지식인들 중에서 민족적 성향을 보이는 이들을 스탈린은 숙청을 하였다. 야쿠치아에서 숙청을 당한 대표적인 인물이 민속학자 겸 혁명가인 Platon Sleptsov(Oyunsky)와 야쿠트 작가 겸 민속학자인 A. E.

Kulakovskiy, P. V. Ksenofontov, 극작가인 A. I. Sofronov 등이다. 이들은 흐루시초프 시절에 복원이 되었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서 완전히 복권된다. 이들의 책이 다시 출판되고 사람들에게 널리 읽히지게 되며 거리명도 이들의 이름으로 불리게 된다.

이 시기에 사하인들은 근대교육체제를 통하여 러시아어에 친숙하게 된다. 1930년대에 스탈린정권은 성인층의 문맹퇴치작업과 함께 사하 지역에 학교체제를 도입하고 모든 어린이들이 의무적으로 학교를 다니게 하였다. 이 학교에서 러시아어는 3학년부터 배우기 시작하였고 8학년 부터는 러시아어로만 수업이 진행되었다(Argunova 1992: 24). 그 당시에는 교사와 교재의 부족으로 당장 큰 효과는 성취하지 못하였지만, 점차로 사하인들을 러시아어-사하어의 이중언어체제로 끌어들이었다. 사하에서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러시아어를 구사할 줄 알았다. 이들이 처음으로 러시아어를 익힌 곳은 학교였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도입되면서 진행된 러시아어를 공적언어로 하는 이중언어체계<sup>4)</sup>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점차로 강하게 요구되었다. 흐루시초프와 브레즈네프 시절에 사하인들은 심지어 공공장소에서 야쿠트어를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었다고 기억한다. 버스를 타고 출근할 때에 버스 내에서 야쿠트어를 사용하면 러시아인들이 차가운 시선을 보였다고 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젊은 사하인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었다고 말한다. 야쿠츠크를 비롯한 도시 공간에서 러시아인들이 다수를 형성함과 동시에 모스크바 정권의 러시아어 위주의 정책이 강하게 시행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서 사하인들의 민족 정체성을 위협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가 있다.

이러한 민족 정체성에 대한 위협이 하나의 사건으로 나타난 것이 1986년이다. 1986년에 야크츠크 사하대학생들과 러시아 건달들 사이의 갈등이 경찰의 개입으로 무마된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수백 명의 사하 대학생들이 경찰의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작은 시위를 벌였다. 그

---

4) bilingualism은 통합과 분리의 합의로 볼 수도 있다. Clem 1988: 17 참조.



리고는 이 사건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평가받으면서 소련에서 유명해졌는데, 학생들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고, 그 상태에서 매듭지어졌다. 이를 사하인들은 민족 사이의 불평등한 대표적인 예로 간주한다 (Balzer 1996: 109-110). 이 사건은 브레즈네프 이후에 쌓여진 불만이 고르바초프 시기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1980년대에 민족간의 긴장이 상당한 정도로 쌓여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

사회주의 소련의 역사전개과정과 더불어 사하어의 사용공간이 좁아졌으며<sup>5)</sup> 사하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굴절이 있었다. 현재 사하의 30~40대의 사람들 중에서 러시아어보다도 사하어를 못하는 이들이 있다. 시골출신이며, 할아버지가 혁명가였던 한 여교수는 자신이 자신의 딸에게서 사하어를 배운다고 말한다. 자신은 러시아어만을 사용하는 학교에 다닌 관계로 구어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사하어를 배우지 못했고, 딸의 사회진출을 적극적으로 원했던 부모님들도 집에서조차 사하어를 그렇게 강요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의 딸은 90년대 이후에 많이 생겨난 사하어 학교에 다니는 관계로 자신보다 사하어 구사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말한다. 그녀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사하인이라고 느끼는, 사하에서 정체성을 발견하는 자신이 사하어를 잘 하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례는 지식인 여성에게서 많이 보이는데, 한 연구원은 사하인임에도 불구하고 사하어를 거의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발견되는데 이는 대학교육이 사회진출에 필수적이 되고, 대학교육은 전적으로 러시아어로 이루어진 데에 기인한다. 아울러 공적언어로서 강화된 러시아어의 지위와 많은 러시아인의 사하로의 유입은 사하어의 지위를 더욱 더 사적언어로 만들게 되었고, 이것이 사하어에 대한 교육기회의 축소로 나타난 것이다. 스탈린 사후부터 1970년대까지 사하인들의 민족정체성은 소련시민주주의의 공세에

---

5) 1986년에 야쿠츠크에서 사하 학생 중 단지 16%만이 야쿠트어에 능통하다고 답변했다 (Khazanov 1995: 178). 필자가 하숙을 한 집의 여학생도 야쿠트어보다는 러시아어에 더 능숙하였다.

일부 약해진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하공화국은 러시아어와 사하어를 동시에 공용어의 지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모든 대학수업과 공문서에는 러시아어가 이용되고 있다. 1992년 정도에 불균형한 이중언어제를 보완하고자 새로운 법을 입안하였으나 여전히 정부의 책상 속에서 잠자고 있다고 한 사하어학자는 불평을 한다. 이 언어정책은 사하공화국에 살고 있는 러시아인들에게 10년이라는 기간을 거쳐서 사하어를 배울 것을 강제하며, 학교에서 러시아학생들에게도 사하어를 교육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이 법은 현재까지의 공화국정부의 태도로 보아서 통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학생들에게 사하어를 교육하는 것은 벌써 일부에서 시행되고 있다. 몇 년 동안 러시아학생들도 사하어와 사하 전문문화를 교육받는데, 실제 성과는 그렇게 높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나 적어도 언어적 측면에서 새로운 평등한 세상이 열린 것은 확인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러시아인들은 사하어를 학습하는 데에 열의를 보여주지는 않으며, 필요성을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는다. 사하인들과의 대화에서만 이것이 필요한데, 사하사람들이 대부분 러시아어를 잘 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없는 것이다. 사하인들은 전형적인 이개 국어 사용자로서, 모국어 구사율<sup>6)</sup>도 높은 편이어서 대부분 여전히 사하어를 적어도 일상생활에서는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외국인을 만나서는 러시아어로, 자신들끼리는 사하어로 의사소통하는 모습은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는 낯익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 역사적 변화 속에서도 사하언어가 사하인들의 민족적 상징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잘 볼 수가 있다.

사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주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종교이다. 사하인들의 종교는 19세기까지는 샤머니즘, 애니미즘에 기반한 야쿠트 종교였다가 러시아정교의 폭력적 선교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개종하였으며, 20세기가 되어서 이마저도 그들의 일상생활에서 사라져서 많은

---

6) 1989년의 통계로 95%의 사하인들이 사하어를 모국어로 구사한다. 이는 러시아 내의 소수민족 중에서 아주 높은 수치이다(Ignatieva 1994: 127).

사람들은 종교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한다. 현재의 사하공화국은 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고 있지만, 러시아정교의 유사 국교적 지위 때문에, 선교의 자유가 100%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 많은 사하인들은 특정한 종교가 없이 살아가며, 러시아인들은 다시 그들의 종교가 된 러시아 정교의 교회를 찾는다. 사하인들이 실제로 러시아 정교회를 믿었지만, 현재 러시아 정교회는 민족적 성격을 강하게 표방하면서 사하공화국의 러시아인들의 종교가 되었다. 사하인들은 그들의 종교를 찾고자 하지만, 박탈당한 그들의 전통이 새롭게 창조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샤만들이 다시 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새로운 샤마니즘이 사하 민족공동체에서 인정받기에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인다. 종교적으로 사하인들이 사회주의시절을 비판하는 것을 찾기는 어렵다. 러시아 정교회는 이 시기 동안 존재할 수 있었지만, 사하사회에 어느 정도 살아 남았던 검은샤마니즘의 경우에는 철저하게 탄압을 받아서 흔적을 찾기가 어려운 정도였다. 하지만 이러한 탄압이 일반인들에게서 샤마니즘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말살했다고 볼 수는 없다.

이는 샤마니즘이 1992년 사하공화국의 주권선포와 함께 찾아진 첫 번째 전통이었다는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그 해에 야쿠츠크에서 샤마니즘 학술대회를 대대적으로 거행하였으며, 1990년부터 야쿠츠크 시에서 행하게 된 전통축제, 오희아흐에서도 거의 200년 전에 사라진 흰 샤만이 등장하였다(강정원 1999). 아울러 개인의 치병을 주로 하는 검은샤만<sup>7)</sup>도 점차 모습을 나타내는데, 의료체계의 미비 등에 따른 여러 이유로 평균수명이 매우 낮은 사하공화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 샤마니즘이 사하 민족공동체를 유지하는 데에 하나의 축으로 작동할 것을 분명하지만, 그 비중이 언어보다는 작을 것으로 보인다. 샤마니즘이 하지만 갑자기 심포지움의 주제로 선택된 데에는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계산이 들어가 있

---

7) 야쿠치아에 많은 수의 검은 샤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쿠치아에서 완전히 사라졌다고 주장된 검은 샤만이 다시 등장하고, 사람들이 그를 찾는다는 사실은 특정한 문화 요소의 지속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서는 강정원(1998) 참조.

음도 간과할 수는 없다. 샤머니즘이야말로 러시아와의 차별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제인 것이다. 아울러 자신들의 뿌리를 동아시아에서 찾음으로써 중앙과의 경제적 협상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본고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샤머니즘이 1990년대에 정치적 전면에 등장한 것을 단순히 정치적 목적하에서 문화적 전통하나가 수단화된다는 점보다는 샤머니즘이 등장하는 데에 사하인들이 잃지 않고 있는 문화적 전통이 나름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강정원 1998; 1999). 물론 이것도 결국 사람들이 선택한 것이라는 사실은 부정하기는 어려우나 그 선택이 오랜 시기동안 구성되면서 결정된 야쿠트인들의 문화적 전통 속에서 강제되었다는 점도 있다는 것을 본고에서는 주장하는 것이다.

민족정체성에서 출발한 민족간의 경계는 일상적인 사회관계에도 나타난다. 민족 융합 내지는 전 인민의 소비에트 시민화를 목표로 내건 모스크바 중앙 정부의 장려에도 불구하고 일상적인 사회관계에서 사하인들이 러시아인들과 쉽게 어울리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 민족간의 결혼도 20%미만이며, 이웃관계가 좋은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다. 필자가 기거한 아파트의 주인에게 주위의 러시아인과 좋은 이웃관계를 유지하느냐고 질문하면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하였는데, 개인적으로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러시아인들의 경우에도 일상생활에서 굳이 야쿠트인들과 접촉하고자 하지 않았다. 다이아몬드회사에 다니는 중년야쿠트여성은 직장 바깥에서 러시아인과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대답한다. 이러한 사실들은 사하인과 러시아인들의 생활세계가 여전히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혼혈의 경우에도 자신의 선택한 정체성에 충실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혼혈인의 경우에 정체성을 상황에 따라 바꾸는 경우도 관찰할 수 있다. 외모가 러시아계에 가까운 야쿠트-러시아 혼혈아의 경우에 유리한 쪽으로 자신의 민족성을 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사회주의 시절에는 러시아 민족적이 우세하였으며 그 후에는 사하 민족성을 선택하는 경우

가 많아짐을 볼 수 있다. 한 혼혈아의 경우에 기업체의 경영진으로 있는데, 아버지가 사하인이고 어머니가 러시아이다. 그는 러시아국적을 선택 하였지만, 부계친척을 우선시하는 사하풍습은 충실히 따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출세를 위하여 러시아적을 선택하면서도 도덕적 연계는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맺어진 친척들과 가지는 경우인데, 친척들에 대한 의무수행을 착실히 하는 관계로 러시아적을 선택한 것에 대한 비난은 받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생물학적 기준에 따라 구분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되는 러시아와 사하 인들은 서로의 세계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본 것과 같은 인종주의에 따른 구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차별, 배제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다.

현재 사하공화국에서 러시아인과 야쿠트인들은 극단적으로 대립하지는 않는다. 자신들의 상징적 세계가 유지하는 틀 속에서 사람들은 안정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야쿠트 민족주의가 러시아인들을 배제하지도, 러시아 민족주의가 야쿠트인들을 탄압하지도 않는 상황에 있다. 이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민족 간의 경계선이 서로 급속하게 침범하거나 훼손시키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으로는 평등한 다원주의적 상황의 전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러시아와 같은 다민족 국가에서 사하 - 야쿠트인들과 같은 소수민족이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여러 전통문화에서 찾고, 또 그 전통문화가 민족정체성의 기반이 되는 것은 획일화와 표준화로 치닫고 있는 세계의 문화변동과정에서 의미가 있는 일일 것이다.

## 5. 결론

이상의 여러 논의를 통해서 현재 사하인들이 가지고 있는 민족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을 언어와 종교 및 일상문화가 채우는 것을 보았다. 야쿠트어는 사하인들의 정체성 유지에 핵심과도 같은 것이며, 러시아인들에게 러시아어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 종교에 있어서도 러시아 정교회는 러시아인들의 영원한 정서적 고향의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으며, 샤머니즘도 야쿠트 인들을 타민족과 구분지어주는 기능은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보면 언어나 종교, 혈연적 관계, 신화 등이 단순히 도구적으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은 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서적인 만족감을 주는 여러 문화요소들과 일체감은 한 개인의 합리적 판단의 영역을 경우에 따라서는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상대적으로 민족이 형성된 지 오래된 동북아시아나 러시아에서 문화와 정치의 상관관계에서 언어나 종교 등의 문화요소가 상대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주관적인 선택과 함께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하는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요소들도 집단적 귀속감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중시하면서 민족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해 보고자 하였다. 사하인을 사하인답게 하면서 사하인들이 러시아 민족주의 앞에서 살아가게 하는 데에, 역설적으로 오랜 역사를 통해 형성된 상징이 만드는 민족경계가 기여하는 것을 보여 주고자 했다.

사하인들이 사하인의 민족정체성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는 데에 사하인들의 주체적인 판단 외에 사회주의식 민족이해와 정책도 중요한 기여를 했다. 하나의 민족에게 적어도 그들의 문화를 돌려주고자 한 레닌의 결정은 현재 러시아 소수민족들의 지속을 가능하게 한 것이라고 본고에서는 판단을 한다. 1900년대 초반에 열린 여러 세계 박람회에 소수민족들이 전시가 되어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것과 이 결정을 비교한다면

상대적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민족 활자어를 갖게 된 것은, 사하야쿠트인들이 미흡하기는 하지만 자신들의 언어로 된 책과 신문을 발행한다는 것은 전세계의 어떤 지역에서도 찾아 보기가 어려운 예라고 할 것이다. 이러한 민족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변화는 있었지만, 소수민족들이 자신의 언어와 문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극단적으로 훼손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역으로 민족자결권을 부여하고자 한 이 정책이 소련시민주의를 이상으로 내건 소련을 해체시키는 데에 일말의 기여를 했다고 생각된다.

사하인들의 민족정체성은 사회주의 이전의 제정러시아에서는 안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레닌이 등장하면서 이 민족정체성은 오히려 활자어라는 매체를 통하여 좀더 근대화될 수 있었으며, 근대민족으로의 변화에 밑받침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성장하던 사하민족은 스탈린의 등장과 함께 대러시아주의가 바탕에 깔려 있지만 국제주의를 표방하는 소련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사하인들의 민족경계가 열어지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소련 사회 내부에서 새롭게 민족주의가 등장하면서 사하인들의 민족정체성 및 민족경계도 샤머니즘이나 사하언어라는 상징을 중심으로 다시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사하공화국은 다민족사회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 공화국의 원주민인 사하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원을 중심으로 한 극단적 민족주의를 경계하면서도 문화적으로는 민족적 내용을 충실하게 채우고자 한다. 또한 어쩔 수 없이 이웃이 된 러시아인들과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방식을 현재 사하인들은 배워가는 중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 강정원

- 1998 “야쿠트 샤만과 러시아 식민지배,” 『한국사회과학』 20(3):239-263.  
1999 “야쿠트 샤마니즘과 오희아흐축제,” 『비교문화연구』 5:31-54.  
2000 “야쿠트 검은샤마니즘,” 『민속학연구』 7:277-300.

### 고재남

- 1992 “민족문제와 소연방제도의 과거와 현재 및 미래,” 한국슬라브학회 편, 『소련과 러시아-정체성의 위기』, 서울. 101-144.

### 방일권

- 1996 “종교와 민족주의: 소비에트 치하의 러시아 정교회를 중심으로,” 임영상·황영삼 공편, 『소련과 동유럽의 종교와 민족주의』, 서울. 68-84.

### 앤더슨, 베네딕트

- 2002 『상상의 공동체』, 서울.

### 조정남

- 1996 『러시아 민족주의 연구』, 서울.

### Argunova, T.V.

- 1992 *Yakutsko-russkoe dvuyazychie*, Yakutsk.

### Balzer, Marjorie M.

- 1993 “Religion and atheism in the Yakut-Sakha Republic,” in Sabrina Petra Ramet ed. *Religious Policy in the Soviet Union*, Cambridge, 231-251.

### Balzer, Marjorie M./Uliana A. Vinokurova

- 1996 “Nationalism, Interethnic Relations and Federalism: The Case of the Sakha Republic(Yakutia),” *Europe-Asia Studies*, 48(1): 101-120.



- Clem, Ralph  
 1988 "The Ethnic Factor in Contemporary Soviet Society," in Sacks, Michael P. and erry G. Pankhurst ed, *Understanding Soviet Society*, Boston, 3-29.
- Eriksen, Thomas H.  
 1993 *Ethnicity and Nationalism*, London: Pluto Press.
- Forsyth, James  
 1992 *A History of the Peoples of Siberia - Russia's North Asia Colony 1581-1990*, Cambridge.
- Ignat'eva, V.B.  
 1994 *Nacional'nyi sostav naseleniya Yakutii*, Yakutsk.
- Kang, Jeong Won  
 1998 *Der Kulturwandel bei den Jakuten*, Muenchen.
- Kempton, Daniel  
 1996 "The Republic of Sakha(Yakutia): The Evolution of Centre-Periphery Relations in the Russian Federation," *Europe-Asia Studies*, 48(4): 587-613.
- Khazanov, Anatoly M.  
 1995 *After the USSR. Ethnicity, Nationalism, and Politics in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Madison.
- Litvinova, R. K.  
 1997 "Etnopoliticheskie faktory razvitiya gocudarstvennosti," *Respublika Sakha (Yakutia) na rubezhe XX-XXI vekov*, Yakutsk: 101-110.
- Peel, J. D. Y.  
 1989 "The Cultural Work of Yoruba Ethnogenesis," in *History and Ethnicity*, Elizabeth Tonkin (eds.), London.
- Simon, Gerhard  
 1986 *Nationalismus und Nationalitaetenpolitik in der Sewjetunion*, Baden-Baden.

Smth, Anthony D.

2000 *The Nation in History*, Hanover.

Vinokurova, U.A.

1995 "The Ethnopolitical Situation in the Republic of Sakha (Yakutia),"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of Eurasia*, Summer: 60-78.

*Istoriya Yakutskoi ASSR III*, 1963, Moskva.

*Narody rossii; Enchiklopediya*, 1994, Moskva.

〈Key concepts〉: the sakhan, national identity, national policy, shamanism, sakhan language

## Sakhan National Identity and Russian National Policy

Jeong-Won Kang\*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se the relation between the Russian national policy and the Sakha national identity. The Russian national policy can be divided into two parts. In the first we can see the national policy before the October revolution. In this time the government in Moscow did not care about the small people in Siberia like Sakha. The Russian wanted Sakha people only to be Yasak. Before the socialist revolution the Sakha were always under the Russian.

This unequal treatment by the central government was revised radically by the socialist government at first. The Sakha could have an equal membership in the Soviet Union. In this time two things have a great meaning: the new Sakha alphabet was invented, but shamanism was abolished. The new alphabet was an important means for intensifying the national identity. However, by abolishing shamanism the government could see the weakening of the national identity.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Anthrop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akha national identity could be maintained although the national policy of the central government was in principal based on the interest of the Russian. In this process the hard subjective consciousness of the Sakha, the relative progressive national policy of the Russian and the structure of the sakha cultur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is article I wanted to show that the national identity can not be invented only by the political intention. I think that the modern national identity is based on the traditional national identity. The two identities can not divided so easily as the social scientists think.